

핑~퐁 핑~퐁

행복을 주고 받아요

장성탁구동호회

‘핑~퐁, 핑~퐁, 핑~퐁, 핑~퐁’
 지난 24일 밤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에 있는 홍길동 체육관 지하 1층 탁구장에서 녹색 테이블을 핑하는 소리 공이 네트를 넘나들면서 녹색 테이블을 핑하는 소리로 가득했다. 6개의 테이블에 그칠 줄 몰랐다. 탁구공 소리는 수차례의 팔리에도 이르는 탁구 마니아 탁구장 안은 2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열기로 차가운 30여명으로 가득차고 이들이 내뿜는 열기로 차가운 날씨에도 공기는 후끈 달아 올랐다.
 장성탁구동호회(대표·김옥)는 생활체육협의회 차원의 동호회로 생활체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장성에서도 가장 열성적인 활동으로 유명하다. 동호회는 ‘장성클럽’과 ‘녹색클럽’이란 두개의 클럽으로 구성돼 있고 회원은 장성클럽이 40여명, 녹색클럽 60여명 등 100여명에 달한다.
 지난 97년 장성클럽이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레 만들어 진뒤 입소문을 타고 동호회 회원들이 늘어나자 2003년 홍길동체육관 개관에 맞춰 녹색클럽이 분화됐다. 지금은 공무원들 이외에도 자영업자, 사업, 주부 등 회원들의 직업이 다양해 졌지만 아직도 클럽 나름의 색깔은 들뜨지 않는 노련미가 장점으로 구성된 장성클럽은 젊은층의 열정이 특징이다. 이고, 녹색클럽은 젊은층의 열정이 특징이다. 하지만 ‘한지붕 두가족’ 체제인 두 클럽의 공통된 본모는 탁구에 대한 사랑이다. 일을 마치고 매일 밤 체육관에 모이면 클럽을 떠나 즐기는 밤속에서 화합을 다진다. 매달 한차례씩 두 클럽간 대항전을 치르면서 화합도 다지고 실력도 점검하고 있다. 회원들마다의 개성도 눈에 띈다. 최고령 회원인 양

병희(78) 할아버지는 70대 후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체력과 실력을 겸비해 고문을 받고 있다. 라켓을 360도 돌리거나 구사하는 회전 서브에는 젊은 이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양씨는 “젊은이들과 호흡을 같이하면 나도 젊어지는 느낌이다”며 “탁구를 하다보니 변화와 편두통이 사라졌다”고 탁구 예찬론을 폈다.
 동호회의 최고수는 장성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최병훈(56)씨다. 최씨의 다양한 스핀과 수비에는 어떤 공격수도 먼저 나가 떨어진다. 최씨는 “통행금지어려워가면서까지 탁구를 치다보니 어느덧 40여년이 흘렀다”면서 “아들이 데려온 여자친구도 탁구를 좋아한다고 해 며느리도 맛있다”고 웃었다.
 김옥(여·49) 대표와 선수출신으로 동호회 코치를 맡고 있는 유진숙(여·47)씨는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30여년만에 이곳 동호회에서 다시 만난 케이스. 고교 시절 전남대표 선수까지 지낸 유씨는 “탁구를 인연으로 다시 만나 기쁘다”고 말했다.
 장성탁구동호회는 동호회 활동을 넘어 탁구의 저변을 넓히는 ‘행복 바이어스’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관심이 없던 중·고교생들까지 한 두명씩 클럽을 제 발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점이 탁구의 가장 큰 매력”이라며 “노스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다 보면 탁구를 통해 대화의 문도 열리게 된다”고 환하게 웃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장성클럽 40명·녹색클럽 60명으로 구성

공무원·자영업자·주부 등 직업도 다양

매달 한차례씩 클럽 대항전... 화합 다져



‘장성클럽’과 ‘녹색클럽’으로 구성된 장성탁구동호회 회원들이 지난 24일 장성 홍길동체육관에서 회원간 화합과 함께 영원한 탁구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위적량기자 jrwi@kwangju.co.kr



‘김택수 라켓’

◀ ‘장성클럽’ 김광중 총무의 비밀병기인 일명 ‘김택수 라켓’. 편백나무(히노끼) 원목에 반발력이 좋은 러버(고무)가 특징으로 40만원을 호가한다.

장성 홍길동 체육관 생활체육 산실 됐다

탁구 등 12개 종목 시설... 하루 160여명 이용

장성 홍길동체육관이 생활체육의 산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03년 장성군 문화센터(현 명칭·문화시설관리사무소)로 정식 개관 이후 지역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탁구장·스쿼시장·헬스장·에어로빅장·태권도장·농구장 등 12개 종목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개관하고 있다. 탁구·골프·농구·헬스 등 19개 생활체육 연합회가 구성돼 동호회 형태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1일 평균 160여명이 찾고 있다.
 최근에는 잘 정비된 시설과 활발한 동호회 활동으로

인해 입소문을 타고 광주 첨단지구 등 인근 지역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체육관이 활성화 된데는 장성군의 관리방식도 한 몫했다. 장성군은 지난해까지 이용료를 전혀 받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1일 이용료로 성인 1천원, 어린이 700원을 받고 있다. 월권은 성인 2만원, 어린이 1만5천원으로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장성군생활체육협의회 김성웅회장은 “이용객들이 늘어 올해부터 최소한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며 “군에서 조례를 개정해 군민에게 할인혜택을, 외지인에게는 할증료를 적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합격은 김영에서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의·약대편입/ 의·치약전문대학원
 ★ 2010년 김영스쿨 신입생모집

편입관련 문자상담 010-7766-1254

www.kimyoung.co.kr

그동안 12만 5천여명 편입합격!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바로 뒤 (062)227-8088

2010학년도 편입대비

- 2010학년도 편입대비
- 기초부터 알기쉽게
- 편입영어 입문 및 기본과정
- 문법, 독해, 어휘 MT(조별토론학습)

대학편입 대개강 : 3월 2일

= 정확한 합격 예약!! 無等과 만나세요. =

7.9 급 공무원 對備 전문

9급 직종문제풀이 4주 완성
 행정세관감법검마철교보보간복소기 (영어)10기능직
 정행무세사원찰약공정호건호지방술
 = 각 지방직 (시험 5월 23일) =
 서울 903, 부산 251, 대구 100, 인천 383, 광주 88
 대전 105, 울산 66, 경기 630, 강원 180, 충북 182
 충남 348, 전북 208, 전남 238, 경북 218, 경남 316

개강 3월 2일 (주·아침반 포함) (현재예약접수중)
 소방직·사상차다모집예정·단독반·이명호교수님
 서울 372, 부산 82, 대구 42, 인천 277, 광주 116
 대전 78, 울산 42, 경기 273, 강원 178, 충북 113
 충남 188, 전북 116, 전남 190, 경북 128, 경남 110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222-4560

불황을 이겨내는 방법? 전문자격증 준비!! 공인중개사 10월 25일 시험

여성 최고의 유망 전문직 아파트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9월 20일 시험
 최강의 교수진 "저자직장" 전원 서울에서 출강!
 3월 2일 (첫년도 시작반) 직장인 수강료 환급 국비지원 선착순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첨단점 ☎ 971-0002 광주은행 첨단점 4층